

황금 물결 일렁이는 저 들
 녘 어딘기에서 옛 절의 향기
 가 배어 나온다. 오솔오솔 익
 어가는 나락들은 용화세계
 (龍華世界) 미륵부처님께 올
 릴 공양미인 듯 탐스럽고, 들
 녘을 비껴 선 한 쌍의 당간
 지주는 농부들이 받쳐놓은 지계목발인 듯 한가롭다. 긴 세월 오
 로지 한번 맺은 인연의 법도만을 지키는 의좋은 당간지주와 저
 송 꽃 만발한 오층석탑 1기가 아니라면 여기가 옛 절터인 줄 누
 가 알겠는가. 전각과 도랑의 경계였던 담장은 기왓장, 유구를 모
 아 논둑길로 밟았고, 그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걷다보면 그새 한
 철 인거에 들었던듯 개구리떼들이 인기척에 놀라 화들짝 고개의
 바다로 뛰어든다.

미륵들의 꿈·비원 서린 절터



매사기를 찾아서
장지연의
잊혀진가람 탐험



안성 봉업사터

안성 땅은 미륵동네다. 백운산 비봉산 서
 운산으로 울을 삼고, 하늘 아래 선인(仙人)들의
 심상처럼 북고 차진 토질의 안성 땅을 안
 마당 삼아 각양각색의 미륵들이 다투어 세
 속 살림을 차리기에 '안성맞춤'인 곳이다.
 기술러 쌍미륵과 궁예미륵, 대농리 미륵, 미
 립당의 태평미륵, 아양동 미륵 등 웅장중앙
 미륵들이 동네어귀마다 고만고만한 살림을
 차렸다.

미륵들 중에 인간 세상의 호구(戶口)에 가
 장 가까이 들어와 손가락질 짓가락질을 함께
 했던 승속동행의 미륵은 궁예 미륵이었다.
 궁예는 칠현산 칠장사에 들어 머리를 깎고
 일찍부터 활쏘기를 익혔다. 안성 들 주변의
 야산에는 유난히 조릿대(竹)들이 많다. 미륵
 의 화산임을 꿈꾸면 '미완의 미륵' 궁예가 허
 공에 날린 무량무수의 화살이듯 키 작은 조
 릿대들이 합부로 뿌리를 내리고 아직도 허리
 를 곧추 세우는 것이다.

궁예에 이어 남사당패를 따라 운수행각을
 하던 황석영의 '장길산'도 서운산 청룡사에
 들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. 장길산의 스승
 운부대사는 '미륵의 세상이란 기다리는 것
 이 아니라 만드는 것'이라는 미륵 세계의 역
 동성을 일깨웠다. 의적 임꺽정에게 병든 세
 상을 주여거릴 의기(義氣)를 북돋웠던 인물
 도 칠장사에 은거하던 그의 스승 같아차였다.
 앞서거나 뒤서거나 현실 속으로나, 전설
 속으로나 이렇게 이 땅으로 강생했던 민중의
 인도자인 미륵들이 불러들였던 강한 흡인력
 이 안성 땅에 있었다.

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안성은 오랫동안
 내륙 교통의 요충지이며 군사요충지이기도
 하다. 팔도의 물건들이 모여들고 또한 깔고
 앉은 뒷밭에서 질 좋은 농산물과 수공업품이
 양산되기에 유기그릇과 가죽꽃신 등 꼭 입에
 맞는 물품들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'안성맞
 춤'이라 하였던 것이다.

충청북도에서 서울로 오는 길목에 위치한
 죽주산성은 군사 요충지인 까닭에 숭한 역사
 의 상흔이 돌 돌마다 서려 있다. 신라 말기에
 는 궁예가 한때 몸을 위탁했던 기원이 이 곳
 을 본거지로 삼아 9년을 머물렀고, 고려 말
 몽고군의 침입 때는 송문주 장군이 민초들과
 함께 파죽지세로 물러오던 몽고군을 이 곳에

서 물리쳤으며, 임진왜란 때는 황진 장군이
 기습 공격으로 이 곳을 탈환하여 왜군이 더
 이상 용인과 이전으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였
 다. 비바람 몰아치는 역사의 구비마다 천박
 한 민초들이 한당어리가 되어 온 몸으로 지
 켜낸 안성 땅은 이곳이 더 이상 단순한 중생
 들의 살림터가 아닌 미륵들이 거처하는 성지

꾸었던 영웅들의 선업(善業) 또한 다스려야
 할 업이기에 그들이 남긴 엄청난 대업(大業)
 을 부처님의 뜻으로 섬기고 간직하고자 지은
 절이다. 봉업사에는 오랫동안 고려 태조 왕
 건의 진영(眞影)이 모셔져 있었다. 대업을 역
 사 속에서 현재시제로 가장 강하고 뚜렷하게
 실현시켰던 인간속의 진정한 미륵이 왕건이

는데, 38년 국도 오른편의 매봉산 자락에 이
 르는 방대한 농경지가 전성기의 봉업사터로
 추정되는 곳이다. 봉업사터는 언제 어떻게
 폐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연을 간직한 채
 지금은 수만 평야의 논밭이 되어 필만사촌의
 나락들을 키우고 있다. 따사로운 가을 햇살
 아래 금빛으로 들렁이는 봉업사 터는 석존
 입멸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 도솔천에서 대
 기하던 미륵보살이 감림하여 용화삼화(龍華
 三華)를 삼하는 화림원(華林園)의 법연장을
 연상케 한다.

봉업사터는 1997년 9월과 2000년 10월 두
 차례에 걸쳐 경기도박물관의 발굴조사가 있
 었다. 사지 전체가 농경지이기에 농한기인
 겨울철에 극히 일부 지역만 표본적인 발굴작
 업이 가능했는데, 70여점의 유구 유물이 출

삼국통일 대업이론 고려왕실 원찰

두 석탑·석불입상 제자리 떠나 산재

寺趾전체 농경지...두차례 발굴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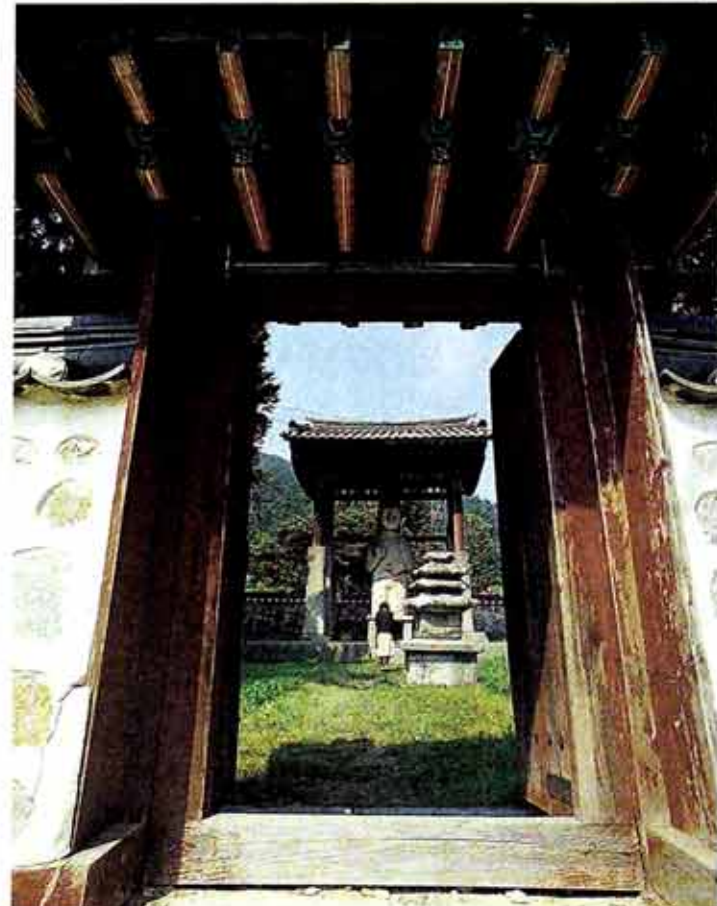


◊봉업사터는 사지 전체가 현재 농경지이다. 멀리 보이는 탑이 보물 제435호인 오층석탑.

며, 그 미륵들이 '미륵 세상은 기다리는 것이
 아니라 만드는 것'이라는 일깨움을 승무경
 같은 그네들의 가슴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.
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50-1번지 일대에
 산재한 봉업사(佛業寺)터는 이 땅을 오갔던
 모든 미륵들의 꿈과 비원을 기리는 절터다.
 약업(藥業) 만이 업이 아니라 용화세계를 꿈

라고 여겼기 때문이다. 개성의 봉은사, 논산
 의 개태사와 함께 고려의 진전사원(眞殿寺
 院)이었던 봉업사는 고려의 종립 475년 동안
 왕실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선왕에 대한 예를
 올렸던 왕실의 원찰이자 호국사찰이었다.
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을 지나 일죽IC
 로 들어서면 곧바로 죽산면 죽산리에 도달하

토되어 봉업사터 성격 규명이 획기적인 자료
 를 제공해 주었다. 부족한 예산으로 무턱대
 고 드넓은 농지를 매입하여 발굴작업에 들어
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렇다고 고존한 역
 사 유물이 땅 속에 들어있음을 뻔히 알면서
 도 그대로 묻어둔 채 마냥 곡식만 경작하는
 것도 속 편한 노릇은 아니다. 사지 발굴을 국



◊미륵세상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인가. 매산리 비봉산 봉업사터의 태평미륵
 도 용화세계를 만들기 위해 오늘날도 자비의 손짓을 하고있다. 보호각 사이로 태평미륵이 보인다(경
 기도 유형문화재 제37호).

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기 보다 정작 그
 주인되는 불교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
 체계적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
 다.

봉업사터 가운데 지난 번 2차 발굴 조사된
 436평의 땅을 1백55만원에 임대했다는 땅
 주인 천정래(57세, 죽산리 461번지 거주)는
 다시는 땅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고개를 짓는
 다.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 이번 태풍 '루사'
 에 그 위에 심은 벼포기들만 넘어졌다는 것
 이다. 천정래처럼 봉업사터의 등기부상 실

제 주인이 있는가 하면 둘로는 이 없는 산 밑
 의 석불입상(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7호)을
 14년째 홀로 돌보는 장일선(76세) 할머니 같
 은 이도 있다. 우연히 이 산 밑에 들렀다가 부
 처님이 좋아비닐하우스를 짓고 내리 14년을
 살았다는 것이다.

업이 어찌 속도 중생의 것만이었는가. 석
 불은 석불대로, 사원은 사원대로 인연의 모
 양새를 지어놓은 그 순간부터 업이 태동하는
 것이니 봉업사의 업은 쫄쫄히 흘러지는 것이
 언던가. 오층석탑(보물 제435호) 석불입상(보
 물 제983호), 칠장사 소재 삼층석탑(경기도
 유형문화재 제78호) 등 어느 것 하나 제자리
 에 있는 것이 없다. 고해의 징검다리인양 락
 업피엄 죽산리 일대 농경지에 적당히 터를
 잡고 또 다른 세월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.

지난 봄 다녀온 강릉 신복사터와 학산 굴
 산사터 석정(石井)이 이번 큰 물로 인해 토사
 에 휩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. 불국사
 다보탑과 석가탑, 같은사지 대담도 '정도의
 기울었다는 보도이다. 멀뚱한 성보들도 소리
 없이 기울고 토사에 휩쓸리는데, 발굴의 엄
 두조차 내지 못하는 폐사지들은 또 얼마나
 소리없이 땅 속 깊이 가라앉고 있을 것인가.
 문화재에 대한 인식, 눈앞의 명리만 좇는 현
 대인의 사고체계 또한 기울어 가는 것은 아
 닌지 생각해 본다.

<시인·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>
 사진 = 고희명 기자
 다음은 강화선원사터



◊봉업사터에 있는 석불입상(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7호), 장일선 할머니가 14년째 돌보고 있다.

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



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

Chogyo Order of Korea Buddhism Hanmaum Sean Center

원 장 대 행
 주 지 혜 원

사부대중 일동

▶ 본 원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01-62
 전 화 : 사무처 (031)470-3100 팩 스 (031)470-3116
 홈페이지 : http://www.hanmaum.org

● 국내지원 ●

-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 4구 산 5-2 TEL: 043-877-5000 FAX: 043)877-2900
-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: 064-721-4662 FAX: 064)721-0302
-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-1 TEL: 051-403-7077 FAX: 051)403-1077
-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-5 TEL: 062-373-8801-3 FAX: 062)373-0174
-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-7 TEL: 052-295-2335 FAX: 052)295-2336
-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-274번지 TEL: 053-767-3100 FAX: 053)765-1600
- 광주남원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-1 TEL: 055-342-6693-0 FAX: 055)345-9900
-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말리 50 TEL: 055-746-8163, 744-1321 FAX: 055)746-7825
-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동 344-21 TEL: 042-532-1481 FAX: 042)526-0891
-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삼도동 18-99 TEL: 054-275-3163 FAX: 054)274-3503
-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-1 TEL: 043-259-5599 FAX: 043)255-5599
-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: 033-651-3003 FAX: 033)652-0281
-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-3 TEL: 055-643-0643 FAX: 055)643-0642
-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삼동 982-19 TEL: 061-284-1771 FAX: 061)284-1770
-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: 054)555-8871 FAX: 054) 556-1989

●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●

- U.S.A (미국 지원)
 - New York (뉴욕클러시 지원) 144-39.32 Ave. Flushing NY.11354 TEL: 718-460-2019 / FAX: 718-939-3974
 - Washington (워싱턴 지원) 7807 Trammell Rd. Annandale VA. 22003 TEL: 703-560-5166 / FAX: 703-560-5566
 - Los Angeles (LA 지원) 1905 South Victoria Ave. Los Angeles CA 90016 TEL: 323-766-1316 / FAX: 323-766-1916
 - Chicago (시카고 지원) 7852 N.Lincoln Ave.Skokie IL. 60077 TEL: 847-674-0811 / FAX: 847-674-2280
- CANADA (캐나다 토론토 지원) 20 Mobile Dr.North York, Ontario M4A 1H9. CANADA TEL: 416-750-7943 / FAX: 416-701-1359
- ARGENTINA (아르헨티나)
 - Buenos Aires (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) Miro 1575 cap. Fed. CP(1406) Rep. Argentina TEL: 5411-4921-9286 / FAX: 5411-4921-9286
 - Tucuman (투쿠만 지원) Av. Aconquija 5250, El Corte,Yerba Buena, CP4107 Prv.Tucuman Rep. Argentina TEL / FAX: 54381-425-1400
- GERMANY (독일 지원) Broicherdorf Str. 102, 41564 Kaarst, Germany TEL: 49-(0)2131-969551 / FAX: 49-(0)2131-969552
- THAILAND (태국 지원) 86-1 soi 4 Sukhumvit 63 Bangkok, Thailand TEL: 662-391-0091 / FAX: 662-381-8588